혹시? 추석 연휴 관심사 "보이스피싱 조심"

동생 사칭 카톡 500만원 사기…소액결제 사칭 스미싱 등 빈발
추석 연휴 스팸신고 건수 최근 3년 연평균 18만건 증가 '주의'

지난 12일 밤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에 살고 있던 김민호(51·광주시 서구 금호동)씨 가족 형제자매들이 김씨의 집에 모처럼 모였다. 올 추석 김씨 가족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는 최근 가족들에게 날아온 카카오톡 '보이스 피싱' 에 관한 이야기였다.

김씨의 누나 2명은 지난 2일 김민호씨의 이름으로 '상황이 위급해 당장 병원비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작은 누나는 카톡을 받자마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 피싱임을 확인하고 바로 다른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평소 성격이 급하다는 말을 들어온 큰누나는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이미 500만 원을 입금한 뒤였다.

큰 누나인 김연자(58)씨는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동생에게 아무 일이 없어 다행"이라면서도 "평소 건강 문제가 많은 동생이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사는 박연재(32)씨는 최근 구매하지도 않은 립스틱이 배송될 예정이라며 배송일정을 확인하라는 URL주소와 일반 핸드폰 번호가 포함된 택배문자를 받았다.

박씨는 "최근 지인이 택배문자로 피싱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며 "또 남자인 내가 립스틱을 살일이 없어서 다행히 보이스피싱 수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올 추석 연휴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당부 인사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자'였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나 본인 주변에서 들은 각종 신종 수법들을 이야기하며 서로 조심하라고 당부하기 바빴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자식과 연관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들이 많았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배송 확인이나 소액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에 관한 이야기도 주를 이뤘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SMS)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택배나 공공기관의 사칭뿐만 아니라 명절을 맞아 오가는 각종 안부 문자도 스미싱의 대상이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 등도 추석을 앞두고 연휴기간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위험전화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IT업체인 후후앤컴퍼니는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등 스팸처리(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18만건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놨다. 특히 올 추석 연휴에는 예년 대비 16%정도 증가한 130만여 건이 스팸등록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나 인증서의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 요구, 가족 납치·협박 등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 지역 번호, 휴대전화 번호, 공공기관 전화번호 등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요즘은 카카오톡 등을 해킹한 뒤 지인처럼 위장해 돈을 뜯는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전화금융사기 검거 건수는 2016년 233건, 2017년 504건, 2018년 67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8월까지 검거된 건수만 해도 542건에 달한다.

피해액도 2016년 21억 3000만 원, 2017년 33억 2000만 원, 2018년 37억 7000만 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피해액만 78억 4600만 원에 달해 지난해 피해액의 2배를 넘어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연휴 뒤끝 '쓰레기 도심' 추석연휴인 지난 14일 광주 대표 상업지역인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도로변 곳곳에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 더미가 넘쳐나면서 귀성객과 시민의 민원이 이어졌다. 광주 서구청은 추석연휴 기간 중 13~14일 이틀동안 음식물·생활쓰레기·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다문화여성 가정폭력 피해 심각

5년간 269건 발생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광주·전남 다문화여성이 매년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들은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격리보호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광주 68건, 전남 201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3993건으로, 전남은 경기(1736건), 서울(712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건수였다.

지난해 기준 17개 광역시·도별 다문화가구 대비 가정폭력 발생률을 따져봤을 땐 경기가 0.67%(9만9008가구, 666건)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0.45%(6836가구, 31건)로 강원과 함께 공동 2위, 전남이 0.4%(1만3342가구, 54건)로 4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4년 132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5년 새 9.6배 늘어났다. 전체 가정폭력 검거건수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0.7%에서 지난해 3.0%로 4배 이상 올랐다.

실제 건수는 이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문화 여성들은 국적 취득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다문화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추석 화재 5년간 66건
음식물 조리 부주의 최다

추석 연휴 기간 화재 중 음식물을 조리하다 난 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광주에서 추석 연휴 기간 총 6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2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 21건(31.8%), 기계적 요인 5건(7.5%) 순이었다. 부주의 가운데는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11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8건(25%), 기타 4건(6.1%) 등이었다.

음식물을 조리하다 난 불은 대부분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하거나 잠을 자는 경우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았을 때는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말고, 만약 음식물이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날 때는 먼저 밸브를 차단하고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날 새벽 4시 20분께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50대 부부가 숨지고 자녀 등 3명이 다쳤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가위 참변…광주 아파트 화재 50대 부부 사망

고흥선 채무 갈등 끝 흉기 살해
화순선 환경미화원 갑자기 숨져

추석 연휴 기간 광주·전남에서는 화재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5일 광주·전남경찰청과 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4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가 모두 타고 50대 부부가 숨졌다. 아들 A(23)씨와 A씨의 친구 B(24)씨는 창문을 통해 화단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지긴 했으나, 화상 등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딸 C(22)씨는 창틀에 매달려 있다 아래층 주민에 의해 구조됐다.

아파트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주민 23명은 연기를 피해 꼭대기 층에 모여있다 구출됐으며, 연기를 마시거나 피신 중 다친 1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흥에서는 채권자에 빚 독촉을 하다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고흥경찰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께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 인근 도로에 주차된 K5 차량 안에서 B(6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추석 당일 만나자는 B씨의 제안에 따라 함께 만났다가, B씨의 차 안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총 1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지난 13일 목포에서는 추석을 맞아 고향에 온 50대 남녀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인모(55)씨와 구모(여·50)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35분께 목포시 동명항에서 항구에 설치된 차량 방지턱에 앉아 바다를 구경하던 중 인근에 묶여 있던 선박 고정용 로프가 풀리면서 이 줄에 맞아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에선 추석 연휴를 맞아 길거리 청소에 나선 환경미화원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사인을 조사중이다.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 30분께 화순군 화순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환경미화원 김모(58)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쓰러진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의 동료들은 경찰에서 "김씨가 작업 준비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유족과 부검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완도해경, 표류 모터보트 구조

추석 당일 모터보트를 타고 레저를 즐기던 40대 남성이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1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50분께 완도군 대모도 동쪽 1㎞ 해상에서 선장 이모(49)씨 등 2명을 태우고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1t급 모터보트를 예인했다. 이씨 등은 4시간여 동안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뒤 돌아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신고로 경비정과 연안 구조정을 급파한 해경은 안전조치와 예인 구조를 실시해 보트와 선원을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군산 음주운전 사고 4명 사상

15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 모 병원 앞 도로에서 A(23)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유턴하던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K5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동승자가 숨지고, A씨와 또다른 동승자 등 2명이 다쳤다. 코란도 운전자도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아파트서 송편 투척…두살배기 아들과 산책하다 "하마터면"

쌍나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송편을 던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32)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25분께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일회용 장갑에 담긴 송편이 떨어져 자신과 아들이 맞을 뻔했다는 것.

○…경찰은 "현재까진 아파트 외벽 등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송편을 던진 주민을 찾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일회용 장갑에 남아 있는 지문과 송편 등에 묻은 흔적 등을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던진 사람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 54310	1	목포시 양을로121, 106동 7층 703호 [산정동,종원나이스빌] 120.5160㎡	아파트	210,000,000 210,000,000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327	2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760 3355㎡	전	137,555,000 137,55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389	1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산115-16 9917㎡[송오동지분6분의2전부,지분매각]	임야	18,842,310 18,842,31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9타경 440	1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816-4 1947㎡	전	120,714,000 120,71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50292	1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583 1329㎡	전	93,030,000 93,03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9. 30.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10. 7.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문형준